

5월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영숙 본 재단 이사장

금년으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100인 기부 릴레이를 필두로 다양한 이벤트로 이어진 재단의 5월 여성희망캠페인을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 캠페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00인 기부 릴레이에는 110명의 이کم이들과 6월 13일 현재 2190명의 릴레이주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이کم이들은 대통령 영부인, 세 분의 장관, 14명의 여야국회의원, 12명의 기업CEO, 각계 지도자와 재단임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초등학생이 있었는가 하면 36명은 처음으로 참여하는 이کم이들이었고 6명의 이کم이들은 5년 연속 완주자들이었으며 100명을 줄 세운 최다 이کم이와 31명이 2천2백6십만 원을 모금한 최고모금 이کم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을 시발점으로 5월 한 달동안 진행된 여성희망캠페인은 백화점 대바자회, 사진작가와 함께 한 딸을 주제로 한 사진 콘테스트, 영화배우와 함께 한 포토이벤트, 스테이크하우스들이 베풀어준 음식 나눔 행사들, 일터 나눔, 돌잔치 나눔, 인세 나눔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줄이었습니다.

이 행사들에서는 각 부문의 유명 인사들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몸소 시민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소외 청소년들에게 문화상품권을 건네주는 깜짝 선물 제공 등의 기부와 봉사로 캠페인의 내실을 알차게 하는 등 5월 한 달을 달구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표가 모금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나눔의 문화 확산과 성차별 인식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재단이 창안해낸 릴레이형식의 모금양식은 참여자 누구나가 기부자가 되는 동시에 기부권유자가 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부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부를 권하는 일은 꺼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모금과 관련된 어떤 조사에 의하면 권유를 받아보지 못한 까닭에 기부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절대다수이기에 이에 미루어서도 기부 릴레이는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참여한 개개인은 분명히 신선한 보람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금년도 캠페인의 주제는 <빈곤의 여성화 해소>입니다. 이것은 빈곤의 명에 여성 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빈곤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자산점유율이 낮은데서 비롯되지만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에게 비우호적인 사회안전망체계, 변화하고 있는 지식근로사회에 적응하는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족해체로 인해 증가추세에 있는 여성가장들이 남성생계부양자 위주의 노동정책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고 등에 의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남성에게 주어지는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이 가장으로서 같은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가장의 빈곤문제는 후세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세상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불가항력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강제했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여성계의 화두가 경제적 평등으로 이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문제해결을 외면한 채 21세기가 지향하고 있는 성평등사회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월 13일 현재 100인 기부 릴레이의 총모금액은 1억 1천여만 원입니다. 이 모금 전액은 재단의 파트너 단체들의 빈곤의 여성화 해소 활동에 배분될 것입니다.

해마다 기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부릴레이가 구명 난 독에 물뿔기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콩나물시루에서 보듯이 물은 빠져나갔지만 여성의 희망은 분명히 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베푼 나눔의 손길이 절망하고 있는 어떤 이에게 새 희망을 가지게 하였다는 보람과 뿌듯함이 내년에도 이 행진에 가볍게 참여하게 할 것으로 바라면서 다시 한 번 5월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하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